

분당주택 Bundang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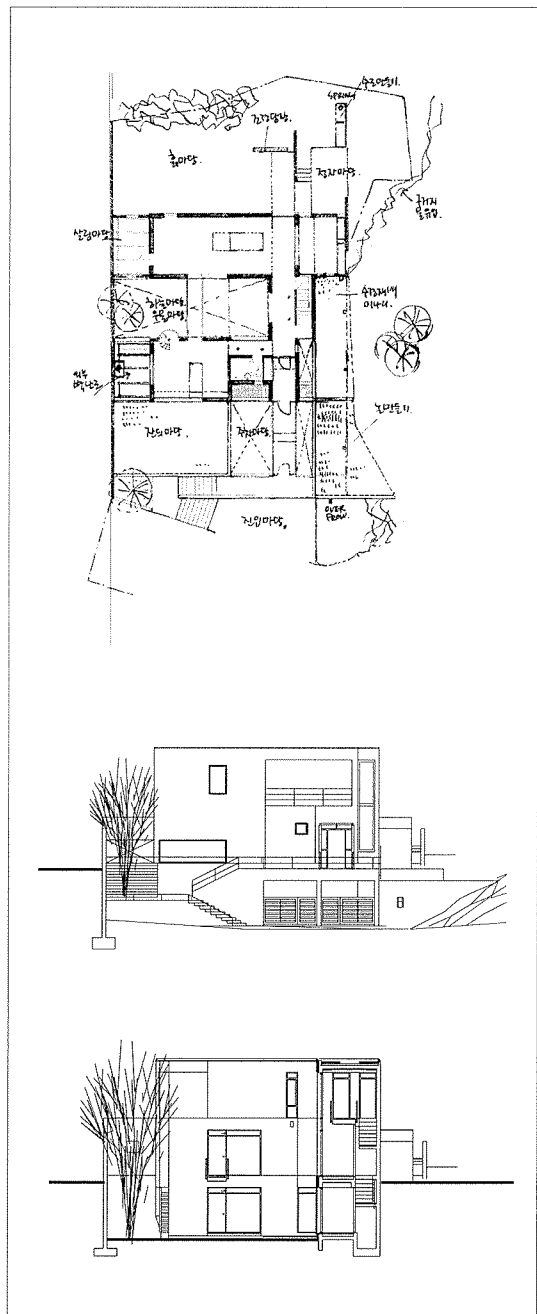
허서구 / 영건축, 스튜디오 許·家·房
by Heo Seo-Goo

한솔집

집을 이야기 할 때, 그리고 글을 쓸 때, 상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 하듯 예의를 갖출 것. 종교적 방언(方言)을 듣듯, 전달내용 보다는 전달모습에 감동을 받는 신앙적 소작인들이 아니기 때문. 그것은 放言이 될 수도 있음. 연연하던 그 무엇들에 미련을 버렸을 때, 집착하던 두손을 풀어 버리기로 하였을 때, 질푸른 새벽 바람은 폐포 하나 하나가 생윤하듯 호흡되었고, 그날 아침의 첫 전화... 그리고 새로운 집짓기에 빠져든다. 막내인 한솔이는 자기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건축가 아저씨에게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지만 건축가로의 꿈이 제법 진중하게 들린다. 아이에게 이집은 어떠한 인연의 고리가 될까..... "우리 집도 이름을 지어 주세요" 내게 인연되고 인연되어질 가장 소망스런 세사람의 건축주중, 이미 그 하나로 확신되어지는 두 내외분.... 집은 사람을 닮는다. 건축가 자신의 전부이기도 하고 건축주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사람이 짓는 집, 그래서 집에도 인격이 있다. 겸허하게 완성을 기다리는 긴 시간의 인내가 있다. 집은 행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니.

다섯길 아홉마당집

바람길 낮이건 밤이건, 비오는 날이건 마른날이건, 창들이 열려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여름 내내 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위한 노력들. 집은 숨쉬고 창과 문들은 바람의 길목으로 마중 나간다. 그리고 창호의 디자인을 통하여 눈길과 바람길은



완성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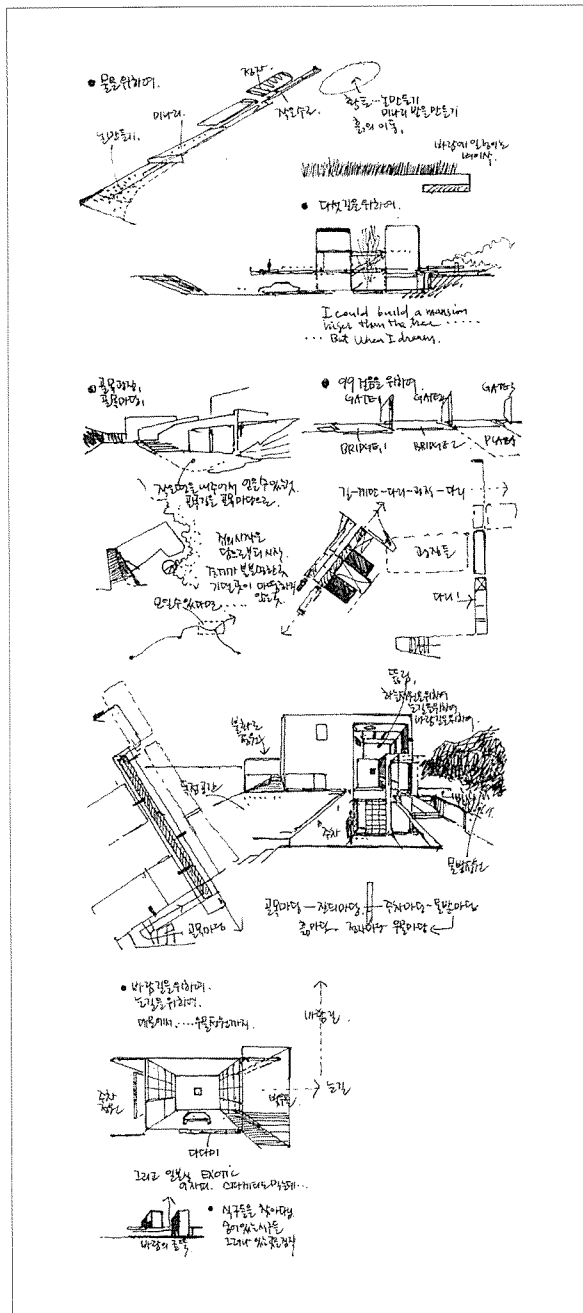
눈길 어느 곳에 서있던 집은 안모습 밖안모습의 자신의 다른 끝들을 보여준다. 제한된 건축면적 속에서 불필요한 벽들은 소거된다. 그것은 사는 사람의 내면과 선택으로 가능하게 된다. 끝에서 끝으로 가장 먼 곳들로 바라보이는 다양한 시각적 정점들은 분명한 자기 논리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걸음길 집 앞에서 집 끝까지 걷는 아흔 아홉 걸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집안을 가장 크고 넓게 걸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위하여 그리고 그 길들의 모습을 위하여

물길 묻는다 지하실은 왜 만드는가? 답한다 물들어 오라고.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은 아직 본적이 없다. 완벽한 방수, 본적이 없다. 물이 많이 나오든 땅. 방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어온 물이 흘러나갈 물길을 만든다. 이 집의 모든 혈관들은 이곳으로 흐른다. 온수, 냉수, 오수... 집이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다섯길 우물정원의 스케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들. 과장되어진 극적 긴장감, 그래도 배려하여야 할 편안함 중에서 끈임없이 레벨 바를 움직여 본다. 다섯길 깊이의 우물정원은 아직도 결과에 대하여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적응을 위한 남은 노력은 계속된다.

집의 평면계획은 마당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각 실의 기능과 위치는 조금씩 바뀌어해도 마당의 위치와 형상은 변하지 않는다. 집을 위한 평면 계획은 마당 짜기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당을 방이라 부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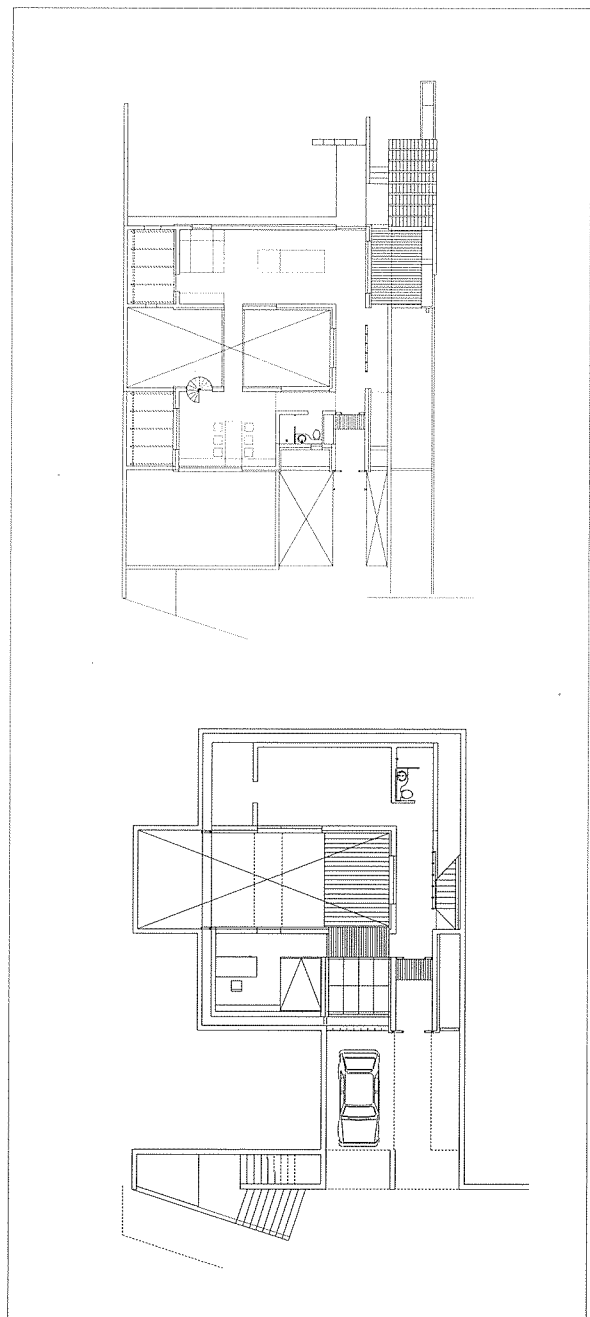
골목마당 대지 주변들이 갑자기 높아지면
서 앞으로 벌어질 막다른 도로의 형상이 심히 우려된다. 내
집앞의 땅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그리고 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고 계단을 집밖에 만드는 것이 오히려 넓은 골목마당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주차정원 자동차를 위해 굳이 음습하고 어
두운 곳을 만들 필요는 없는 일. 땅위의 바닥이 아래로 이동
하였을 뿐, 그래서 진입을 위한 극적인 공간적 장치들도 만
들어진다. 순백색의 자갈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벽 위로
는 벽이삭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우물정원 하늘마당 중심이라는 단어는 사
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도 스스로 관용하여서 이 집의 논
리를 풀어 나갈 그리고 기대어 나갈 중심공간으로 설정한다.
집의 모든 형식과 의미가 이곳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 담장
끝에서 솟아오를 대나무는 집과의 키거움을 하게 된다.

살림마당 부엌살림을 위한 허드렛마당. 집
주인의 성격과 모습으로 정리되어 짐. 장독대와 세탁기. 그
리고 빨랫줄.

흙마당 가장 넓은 마당, 의식적으로 손보
지 않아도 될 마당. 거실을 통하여 직접 연결을 하지 않는
다. 오히려 정자마당의 앞마당이 된다. 대지와 건물의 종축
을 형성하는 걸음축은 브리지로 시작하여 돌담장으로 이어
지는 시각축과 공존한다. 흙마당 뒤쪽으로는 탄인들의 정돈
된 가족묘가 있다. 이것이 뒷산 쪽으로 창을 내지 않은 이유
가 되기도 하지만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아니라 그저 타



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관계일 뿐이다. 삶과 죽음,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한 차이일 것이다.

사랑방마당 집의 앞마당이지만 응접실겸 서재를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한 독점적 공간으로서의 위계를 지님. 이 집에서는 유일한 잔디마당이 된다.

불화로 마당 FIRE PLACE-벽난로가 아니라 불때는 곳. 집안의 벽난로는 주로 겨울에만 사용되지만 실외의 불때는 마당은 연중 사용될 것이다. 연기가 새 나와도 문제되지 않으며 후끈한 우리 식 방안에서 갑갑하게 불지피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불지피는 맛. 나무 바닥과 유리지방아래에서 불가를 저녁은 더욱 운치가 있을 것. 고기를 굽는 우리 식의 파티도 있고 집안의 소각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관용하기로 하자.

물밭정원 구거지를 점유 받아 수경재배를 한다.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조금 과한 일, 미나리를 키우며 주변의 황토 흙으로 논을 만들어 물을 가둔다. 건담직파(乾澮直播)의 형식을 갖지만 물에서도 모내기를 하지 않는 직파종 볍씨가 있단다. 봄, 여름, 가을, 현관으로 들어서는 다리 위에서 바람결에 춤추는 작은 들판을 볼 것이다.

정자마당 숲과 집 사이에서 가족실의 열린 마당이다. 길게 걸어 들어간 그 기억을 다시 뒤돌아 볼 수 있는 곳. 길 건너 앞산을 가장 길게 이 집으로 중첩시키며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

